



# 이흥구, 이름 빼고 다 바꾼다

2016 시즌 '새출발' 위해 타격폼 교정·볼배합 다듬기 한창

“잘 버틴” 2015시즌 ‘새로 출발하는’ 2016시즌이다.

반전의 한 해를 보낸 KIA 포수 이흥구가 오기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대변신을 하고 있다. 이흥구는 시즌이 끝난 후 챔피언스 필드에서 고무밴드로 왼팔을 몸에 묶은 채 타격 연습을 했었다. 본인은 “씩 다 같아없는 중이다”고 설명을 했었다. 전면적인 타격폼 교정에 들어가면서 타격할 때 들리는 왼팔을 아예 묶어버린 것이다.

이흥구는 “폼을 다 바꿨다. 손 위치도 바꾸고, 왼팔이 들리는데 그걸 고무밴드로 묶어놓고 연습을 했다. 전면 수정하고 있다. 아직 나는 내 폼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코치님과 상의해서 더 좋은 폼에서, 더 잘 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다. 폼을 바꾸고 잘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고 있다. 재미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2016시즌, 올 시즌은 ‘잘 버틴 해’였다는 게 이흥구의 이야기다.

이흥구는 “다칠 기회(?)가 많았는데 안 다치고 잘 버틴 것 같다”며 묵묵하게 한 시즌을 돌아봤지만 ‘이흥구의 재발견’으로 표현할 수 있는 2015시즌이었다. 개막 엔트리 한 자리를 차지한 이흥구는 2013년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등 차세대 안방마님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반전에는 스승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가 있었다.

이흥구는 “나카무라 코치님 도움이 컸다. 코치님이 재미있게 하시면서 먼저 다가오셨다. 내 생각이나 스타일을 잘 아신다. 어렸을 때 코치님과 똑같다면서 용기를 가지고 잘 안될 때는 소리도 지르라고 하시는 등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잡아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표현대로 나카무라 코치는 “(이흥구가)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나의 젊었을 때는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다. 이흥구는 자신을 잘 아는 스승에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군입대도 1년 미뤘다. 선의 경쟁자 백용환도 이흥구의 올 시즌에 빼어놓을 수 없는 존재다.

이흥구는 “처음에는 1군에서만 잘하지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다가 (백)용환이형이 올라오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경쟁이 있어서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만루홈런, 끝내기 사구 등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지만 수비가 더 신경쓰이는 ‘포수’ 이흥구다.

이흥구는 “무실점을 기록한 게 한두 경기 정도 된다. 스티븐, (김)진우 형이랑 할 때도 이겼고. 감독님께서 별말씀 안 하시고 나카무라 코치님도 점수는 줄 수 있는 거니까 고개 떨어트리지 말라고 하시는 데 점수를 주면 무조건 잘못된 것 같다”며 “일단 무조건 점수를 안 줘야한다. 주자가 내보내더라도 최소 실점으로 막아야한다. 볼배합이 딱딱해 하나가 잘 때 있다. 막힘없이 타자들이 알아서 쳐주거나 그런 게 기억에 남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타격폼과 함께 볼배합이 이번 마무리 캠프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다.

이흥구는 “플타임을 처음 뛰었는데 경험이 큰 재산이 된 것 같다. 아직까지는 볼배합, 상황 판단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캠프에서 코치님하고 야구 공부 많이 하고 했었다. 많이 공부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 이대호 박병호 프로필

<b>이대호</b>	<b>박병호</b>
1982년 6월 21일(부산)	1986년 7월 10일(부산)
194cm/130kg	185cm/97kg
수령초-대동중-광남고-영남사이버대	영일초-영남중-성남고-전주대
1루수(3루수 가능)	포지션 1루수(3루수 가능)
한국(150경기)	일본(570경기)
타율 0.309	타율 0.281
홈런 225	홈런 210
타점 809	타점 604

**주요경력**

- 2001 롯데자이언츠 입단
-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동메달
- 2008 제29회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 2009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
- 2010 세계 프로야구 최다 경기 연속 홈런 기록 (9경기 연속 홈런-세계신기록)
- 2010 광주아시아인게임 금메달
- 2011~2013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 2013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
- 2013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 입단
- 2005~2011 LG 트윈스
- 2008~2008 KBO 리그 MVP
- 2011 넥센 히어로즈 입단(1루수)(현)
- 2012 정규리그 3관왕(홈런-타점-장타율)
- 2012~2013 정규리그 2년 연속 MVP
- 2013 정규리그 4관왕(홈런-타점-득점-장타율)
- 2014 인천아시아인게임 금메달
- 2014 정규리그 2관왕(홈런 52개-타점 124개)
- 2015 KBO리그 최초 2년 연속 50홈런 및 한 시즌 최다 루타(358) 신기록 수립
- 2015 정규리그 성적출연 1위:53개-타점 1위:146개-타율 0.343-득점 129개-안타 181개

자료/KBO 연합뉴스

## 이대호 ML 진출 선언 박병호와 선의의 경쟁

李, 부드러운 스윙으로 변화구 대처 능력 탁월 포스팅 비용없어 협상도 수월...계약 영향 줄듯

야구 국가대표전인 프리미어 12에서 대표팀의 4번 타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대호(33)와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가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이대호는 3일 방한트리 클럽 & 스파 서울에서 진행된 귀국 기자회견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이대호는 일본 진출 4년 만인 올해 개인 최다인 31홈런 98타점을 기록하며 무난한 개한 기량을 맘껏 뽐냈다. 일본시리즈에서는 타율 5할(16타수 8안타)에 2홈런 8타점을 수확하며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2년 연속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투고타자가 지배하는 일본프로야구에서 30개가 넘는 홈런을 쳐내고, 일본시리즈에서 MVP에 오른 이대호의 화려한 성적은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대호는 경우에 따라서 박병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대호와 박병호 모두 3루수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 포지션이 1루수라는 점에서 두 선수는 같다.

이대호는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파워 히터인 박병호와 달리 특유의 부드러운 스윙으로 변화구 대처 능력이 뛰어나

다는 점이 차별화되지만, 메이저리그의 시선에서는 아시아의 오른손 거포라는 점에서 박병호의 대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 2일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밟은 박병호의 경우 메이저리그 구단은 협상권을 얻기 위해 포스팅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에 반해 이대호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라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대호가 훨씬 손쉬운 협상 상대로 여길 수 있다.

여기에 한국프로야구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일본프로야구에서 4년간 꾸준한 성적으로 검증된 이대호는 서른 중반 나이와 높은 몸값만 아니라면 안전한 선택으로 간주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대호는 일단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병호가 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반대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같이 좋은 팀에 가서 미국에서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대호의 전격적인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으로 박병호에게 집중된 메이저리그의 시선은 분산되고, 두 선수의 이후 계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야구국가대표전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쿠바 대표팀과의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15 서울 슈퍼시리즈'로 명명된 이번 한국과 쿠바의 평가전은 4.5일 이틀 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의 돔구장에서 정식 야구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프리미어 12 대표팀 '고척돔 모의고사'

오늘·내일 쿠바 평가전 통해 선수 운용방안 결정키로

야구국가대표전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오는 4·5일 아마추어 야구 최강자인 쿠바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2015 서울 슈퍼시리즈'로 명명된 이번 한국과 쿠바의 평가전은 이 기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의 돔구장에서 정식 야구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바 역시 오는 8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막하는 프리미어 12에 참가하는 국가다. 쿠바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 랭킹 3위, 한국은 8위다. 따라서 이번

평가전은 양팀 모두 대회를 앞두고 전력을 점검할 기회다.

대표팀은 그동안 28명의 선수 중 두산·삼성 소속인 11명이 한국시리즈에 출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모여서 훈련을 해보지도 못했다. 상비군 선수들이 훈련 상대 역할을 해줬지만, 수비 포지션 수가 맞지 않아 자체 정백전 등 연습경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쿠바와의 평가전으로 선수들은 시즌 종료 후 다소 무뎠던 실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호흡을 맞춰볼 수 있게 됐다.

대표팀은 이번 평가전으로 선수 운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식 대표팀 감독이 고민해왔던 선발 투수 로테이션과 불펜·마무리 투수 보직 등이 이 평가전 이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일단 선발투수는 4일 김광현(SK), 5일 우규민(LG)으로 정했다. 또 다른 선발 자원이 이대호(지바롯데)과 이태양(NC)은 각각 김광현과 우규민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다. 김 감독은 이들 선발투수의 컨디션과 구위를 점검해 오는 8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개막전 선발투수 등 선발진 운용방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불펜 투수들은 쿠바와의 평가전에서 모두 등판 기회를 얻는다. 김 감독은 그 결과를 보고 필승조와 마무리투수 등 보직을

정할 전망이다.

타자 라인업도 점검한다. 일본시리즈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대호(소프트뱅크),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홈런왕 박병호(넥센) 등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들이 어떤 순서로 조화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빅토르 메사 감독이 이끄는 쿠바 대표팀은 2일 입국했다. 28명의 쿠바 대표팀 가운데는 언데 마르티네즈(투수), 올리에스키 구리엘(내야수), 알프레도 데스파인(외야수) 등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도 포함됐다.

한국의 쿠바 상대 전적은 2승 10패, 이 가운데 2승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거뒀다. 당시 한국은 올림픽 결승전에서 쿠바를 3-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제대회로 공인받지 않았던 2008년 쿠바와의 평가전에서는 1승 1패를 나눠 가진 바 있다. /연합뉴스

## 휴~ 대표 선발전 '암밴드 제거' 실력 이상화 월드컵 시리즈 500m '추천 선수' 출전

'빙속여제' 이상화(26·서울일본)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추천선수 제도를 통해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 500m 종목에 출전하게 됐다.

빙상연맹은 3일 "2015-2016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에 나설 20명(남자 10명·여자 1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며 "애초 대표선발전 여자 500m 종목에서 실력 판정을 받았던 이상화를 500m 종목 추천선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이상화는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50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겸 2015-2016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견 대표 선발전 여자 500m 2차 레이스 도중 암밴드를 떼어내 실력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상화는 오는 13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막되는 이번 시즌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에 자신의 주종목인 500m에 나설 수 없게 되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경기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500m 종목의 '세계 최강자'인 이상화를 추천 선수로 결정했고, 빙상연맹은 2일 삼일이사회를 열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